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5 Serial No.125 2013.10. 159~172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5.159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The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arried Working Women

박정윤(Jeong-Yun Park), 장영은(Young Eun Ch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study specif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ve effect sizes of the mother's personality, child's temperament and familial factors as the predictors. The subjects were employed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living in the Gyeonggi-do a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as relatively high. Second, the mother's personality predicted parenting stress in a greater magnitude compared to the effect sizes of the child's temperament, family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or demographic factors. Among mothers' personality factors, neuroticism had the greatest effect followed by cheerfulness, flexibility, consciousness, openness, and extraversion.

▲주제어(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어머니성격(mother's personality), 아동기질(child's temperament)

Ⅰ. 서론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한 가족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즉, 가족원이 감소하면서 핵가족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 관계들이 변화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진출이다.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과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였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였고, 이중 기혼여성 총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Statistics Korea, 2011)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경제활동과 출산의 상호 대처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일・가정을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동시수행하고 있는 기혼여성은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생활의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연구들이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이 육아부담으로 나타나고 있고(Statistics Korea, 2009),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위해서 자녀출산을 조절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비율이 다른 것에서도 할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Eun Ch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tel: +82-2-870-6719, E-mail: yechang@cau.ac.kr

수 있는데 결혼과 출산시기로 인해서 특정 연령층에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일어남을 볼 때 취업기혼여성의 직업적 역할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에 부가되는 이중 역할의 부담감을 경험하고 역할 갈등이나 긴장에 의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됨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일과 가사, 자녀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취업여성은 비취업 여성과는 다른 요인들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의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관련변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요인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혼취업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밝혀지고 있다. 스트레스 유발의 공통된 변인으로는 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사회적 변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관련변인을 고찰함에 있어서 특정 몇몇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가지의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머니 개인 특성, 부부관계 지각정도, 아동의 특성, 주변의 지지정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양육스트레스 인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한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변인, 가족변인, 자녀변인을 포함하여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시에 갖는 양육스트레스를 다각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천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양육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맞벌이 가정들이 일-가정균형을 유지하고 가족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의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주된 핵심은 부모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모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양육에 수반되는 보호, 정서, 안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자녀의 경제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양육의 그 특성상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된다.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기혼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Koh, 1994).

Abidin(1983)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자녀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 하였다. Abidin(1983)은 양육스트레스의 근원은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인 자녀의 특성,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지각인 부모의 특성, 일상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Crnic and Greenberg(1990)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담감이나 불편함, 혹은 긴장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 부모의 특성, 부모의 환경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Kim and Kang(1997)은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케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Chyung, 2008; 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 Kim & Doh, 2004; Kim & Moon, 2005; Lee, 2008;

Weinraub, & Wolf, 1983). 즉,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에게 개인생활을 가질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더구나 부모는 아동의 기질과 행동특성, 부모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기혼취업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Kim, 2004), 맞벌이 부부의 부인은 부모・배우자・직장인으로의 많은 역할 요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대리 양육자의 질에 대한 걱정, 대리 양육 시설의 부족과 양육의 비용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변인은 연구별로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인구학적 변인, 개인변인, 자녀변인, 가족변인별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모의 개인변인은 성격특성을, 자녀변인은 자녀의 기질특성, 가족변인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지를 의미한다.

1) 인구학적 변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월수입, 자녀수를 포함하였다. 취업기혼여성의 연령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부담감의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05)은 기혼취업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경험으로 인해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양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고 걱정을 하게 되며 사건 발생 빈도의 지각과 강도의 지각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몇몇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는데(Jeon, 2007; Park, 2006; Pyun, 2004), 연령이 높은 기혼취업여성보다 연령이 낮은 기혼취업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것은 자녀가 어리고 양육경험의 부족과 연결되어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기혼취업여성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빈도나 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Bek, 2007; Park, 2002). 결국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양육 스트레스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Jeon, 2007; Kim, 2005; Seo, 2004). 고졸이하인 취업여성에 비해 초대 졸 이상 취업여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많다고 밝힘으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일-가정 역할 갈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학력 기혼취업여성은 역할완성도나 기대감이 높고(Seo, 2004). 양육지식이 많으나 실행에서의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Kim, 2005). 반면 기혼취업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Park, 2006) 연구결과도 있는데 저학력 취업여성은 심리적인 손상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상실감이 크고 기혼취업여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몇몇 연구(Heo, 2006; Bek, 2007)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학력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수가 제시된 바 있다. 3명의 자녀수를 가진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Park, 2004; Seo, 2004), 이는 직장 생활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기혼취업여성이 돌봐야 할 자녀가 많은 경우에 역할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해(Jeon, 2007) 자녀수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첫 자녀 연령 또는 막내자녀 연령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파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가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Seo, 2004).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 일반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생활상의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 역할과중과 갈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기혼여성은 양육여건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므로(Jeon, 2007)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높다는 결과도 있는데(Yang, 2010; Park, 2006; Bek, 2007) 이는 소득자체가 아니라 자녀에게 할애하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더 많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되는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 외 소득수준 자체의 영향력이기 보다는 취업과 소득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2) 개인변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미미하게 다루어진 어머니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양육스트레스 인지가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즉, 스트레스의 원인 그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rinc and Greenberg(1990)는 부모자녀관계는 스트레스 발생빈도보다는 사건을 지각한 강도가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 자신의 건강, 성격, 정신병력 등의 특성은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의 지각정도이며 이는 부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elsky and Barends(2002)는 부모의 성격특성, 특히 Big Five라고 불리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과 개방성(Tupes & Christal, 1961)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국내 몇몇 연구(Jin & Kim, 2003; Vondra et al., 2005)에서 같은 기질의 아동일지라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질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밝혔으며, Ahn(2008)는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을 때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여 어머니 성격특성이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이 주고 있음 알 수 있다. 반면,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일부 해소시키기 때문에 자녀양육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변인이 자녀 양육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성격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녀 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변인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 기질을 들 수가 있다.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Park, 2006) 자녀가 어릴수록 신체, 심리적인 면에서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가정생활 중에서 자녀양육에 투입해야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신체적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Moon, 2004).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Crinic & Booth, 1991; Bae, 2004). 즉,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영유아기의 양육과는 다른 측면의 부담으로 자녀의 취학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와 학업성취에 대한 우려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Bae, 2004).

아동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가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을 경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를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들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아동이 우울할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욱 까다로운 아이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 기질이 까다로운 유아는 순한 유아에 비해 적응상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질이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유발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Nam, 2003). 즉 기질이 까다로운 유아는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유아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많이 하게 되어 강압적인 반응을 하거나 (Krech & Johnston, 1982), 유아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여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손상되어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수 있다(Webster-Stratton, 1990; Whipple & Stratton, 1991). Delameter, Lahey and Drake(1981)은 어머니가 아동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부모로서 역할을 지각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활동성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정상아의 부모보다 아동과의 관계에서 더 스트레스를 느끼며 덜 보상적이고 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h & Johnson, 1990).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에너지가 많아서 양육자를 지치게 만드는데, 이 때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자주 제한하고, 아동이 거부하는 행동을 자주하게 되면 어머니와 자녀는 갈등관계수준을 높이게 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uss et al., 1986; Jeong, 200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연령과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조명한 바 있으나, 아동특성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어머니의 성격이나 자녀 양육의 중요한 맥락인 가족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4) 가족 변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으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지를 포함하였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양육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만 양육에 있어 더욱 체벌적, 비판적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Belsy, 1989). Park(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가족의 지지는 취업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지지나 양육 참여도가 중요한데 배우자의 역할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요 변인 중 하나임이 밝혀져왔다(Kim, et al., 2010; Jeong, 2005; Belsky & Kelly, 1994; Crinic et al., 1983)

국내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 및 가사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낮았고(Kim & Lee, 2005),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았다(Lee, 2010). 또한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양육을 도와줄 때 취업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양육 스트레스 및 불안감이 경감되었다(Kim & Kim, 2003). 이는 배우자의 양육 참여도가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충 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보다는 심리적인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도 있다. 즉,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고, 배우자 직장생활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낮아진다(Heo, 2006; Jeon, 2007)는 것이다. Seo(2004)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긍정적 자원으로 배우자, 친가 친척, 친구, 시가 친척 등을 제시하고 있다. Heo(2006) 역시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지지, 가족, 동료의 지지나 이해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구학적인 변인, 어머니 개인 변인, 자녀 변인, 가족지지 변인 각각의 독립적 영향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들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이들 변인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의 차이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미치던 영향변인을 동시에 제시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 자녀인 기혼취업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2월 10부터 3월 4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과 그 외 각 가정에 배포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다시 아동을 통해 초등학교로 회수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였으며 그 외 가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6.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총 29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월수입, 자녀수,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 조력자 대상을 살펴보았고,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 성격요인, 자녀 변인으로 자녀기질과 자녀 연령, 그리고 가족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지이며 측정도구들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기혼취업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총 8문항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월수입, 자녀수,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 조력자 대상 여부와 자녀 변인으로 첫 자녀의 연령을 포함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 and Kang(1997)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Kim and Kang(1997)의 척도의 개발은 Abidin(1983)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Parental Distress 요인과 Crnic (1990) 등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1990)의 Maternal Guilt Scale(MGS)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발한 질문지를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이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의 Cronbach α는 .88,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Cronbach α는 .85,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Cronbach α는 .88이였으며, 전체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 α는 .94이었다.

3) 어머니 성격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The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인성검사(NEO-PI-RS: Min, Lee, & Jeong, 1997)의 단축형을 사용하여 각각 성격특성을 측정하였다. NEO 인성검사(NEO-PI-R: Min, Lee, & Jeong, 1997)의 단축형은 총 240개 문항 중 5개요인 각각을 잘 나타내는 문항 12개씩을 추출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문항을 제외한 5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친화성(12문항), 성실성(12문항), 외향성(12문항), 신경증(12문항), 개방성(11문항)의 5개의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친화성의 Cronbach α는 .63, 성실성 Cronbach α는 .77, 외향성 Cronbach α는 .71, 신경증 Cronbach α는 .77, 개방성 Cronbach α는 .68이였으며 어머니 성격특성 전체의 Cronbach α는 .67이었다.

4) 자녀기질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DOTS-R; Windle, 1992)를 번역, 수정한 Jin(1993)의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DOTS-R (Windle, 1992)은 로서 다양한 연령수준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 여겨지는 기질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척도는 6개의 기질 차원,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기질 척도의 하위요인은 활동수준(11문항), 접근성(7문항), 융통성(5문항), 쾌활성(7문항), 규칙성(16문항), 주의 집중성・주의 지속성(8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공감이 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 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활동수준의 Cronbach α는 .79. 접근성 Cronbach α는 .68, 융통성 Cronbach α는 .70, 쾌활성 Cronbach α는 .83, 규칙성 .85, 주의 집중성・주의 지속성의 Cronbach α는 .69이였으며 자녀기질 전체의 Cronbach α는 .80이었다.

5) 결혼만족도

본 척도는 결혼에 대한 선호도로써 부부의 결혼만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개발은 Roach, Frazier and Bowden(1981)이 고안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척도는 총 3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Cronbach α는 .9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Variable	Groups	n(%)	M(SD)
Age(years)	30 or under	7(2.4)	39.06(3.69)
	31-33	7(2.4)	
	34-36	44(15.1)	
	37-39	99(34.0)	
	40 or more	134(46.0)	
Education	Middle school	1(.3)	
	High school	145(49.8)	
	College	139(47.8)	
	Graduate school	6(2.1)	
Occupation	Professional	71(24.4)	
	Office job	58(19.9)	
	Self business	54(18.6)	
	Service or production	57(19.6)	
	etc.	51(17.5)	
Family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0	6(2.1)	403.69(164.91)
	₩1,010,000-₩1,990,000	12(4.1)	
	₩2,000,000-₩2,990,000	29(10.0)	
	₩3,000,000-₩3,990,000	82(28.2)	
	more than ₩4,000,000	162(55.7)	
Number of children	1	64(22.0)	
	2	197(67.7)	
	3 or more	30(10.3)	
Child care provider after school	Yes	132(45.4)	
	No	159(54.6)	
Child care provider	Relative	81(27.8)	
	Non-relative	51(17.5)	

6)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King, Mattimore, King와 Adams(1995)가 개발한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Scale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공감이 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는 .78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4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7세~39세가 34.0%, 34세~36세가 15.1%, 31세~33세가 2.4%, 30세 이하가 2.4%순으로 평균 연령은 39.06세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은 47.8%이고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가 2.1%, 중졸 이하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전문직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이 19.9%, 서비스 및 생산직이 19.6%, 자영업이 18.6%, 기타가 17.5%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이 28.2%, 200만원~299만원이 10.0%, 101만원~199만원이 4.1%, 100만원 이하가 2.1%이였고 평균 월수입은 403.69만원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이 22.0%, 3명이상이 10.3%로 응답하였다. 첫째자녀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73.9%와 중・고등학생이 26.1%였고 방과 후 조사대상 자녀를 위한 양육조력자 유무에서 45.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4.6%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 조력자의 대상은 가족 친지가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우미, 학원, 기타 등의 가족 외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경우가 17.5%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가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성격요인, 자녀기질, 결혼만족도, 가족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혼취업여성의 관련변인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20점으로 1~4점의 범위에서 볼 때 중간점수보다 낮아 양육스트레스 인지가 높지 않았다.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평균이 2.32점(SD = .55)으로 하위변인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다른 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육아정보의 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불만 등을 나타내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2.15점(SD=.58)이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자신의 개인적 시간과 여유 감소에 대한 스트레스로서 하위변인 평균 중 가장 낮은 2.11점(SD=.51)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혼취업여성의 성격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1점~4점 범위에서 친화성은 2.84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논쟁적이지 않고, 타인 배려가 많고, 예의바르며,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실성의 평균은 2.80점으로 응답자들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리정돈을 잘하며, 시간조절능력과 체계적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2.70점으로 외향성은 유머감각이 있고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 성향을 의미하며, 활동적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개방성은 2.57점이였고 4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이어 성격 중 걱정, 불안, 우울감, 분노와 우울감을 반영하는 신경증은 2.30점으로 다른 성격특성에 비해서 취업여성의 신경증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녀기질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쾌활성이 3.11점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유쾌하고 다정한 표현을 자주 하는 아이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접근성이 2.84점으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새로움이나 변화에 대해 부담감 없이 흥미를 보이는 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규칙성이 2.71점으로 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tical Variables

Variable		Min	Max	M	SD
Parenting stress	General stress	1.00	3.42	2.11	.51
	Parenting burden	1.00	4.00	2.32	.55
	Guilt about nonmaternal care	1.00	4.00	2.15	.58
	Total	1.00	3.59	2.20	.48
Mother's Personality	Agreeableness	1.33	3.75	2.84	.31
	Conscientiousness	1.92	4.00	2.80	.37
	Extraversion	1.83	3.92	2.70	.34
	Neuroticism	1.25	3.67	2.30	.38
	Openness	1.64	3.55	2.57	.30
Child's Temperament	Activity	1.45	3.64	2.48	.40
	Approach	1.57	4.00	2.84	.37
	Adaptability	1.80	3.40	2.60	.32
	Mood	1.71	4.00	3.11	.47
	Regularity	1.44	3.88	2.71	.37
	Persistence/attention span	1.13	3.50	2.39	.39
Family	Marital Satisfaction	1.57	3.83	2.80	.39
	Family support	1.38	4.00	2.74	.47

교적 자녀가 일관성 있는 생활태도나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융통성이 2.60점의 평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주의집중성・주의지속성이 2.39점의 평균으로 하위변인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넷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요인으로 부부와의 관계인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2.80점으로 결혼만족도 수준이 4점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가족지지의 평균은 2.74점으로 가족지지 또한 4점 기준으로 볼 때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남편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가족 모두가 가족의 건강성을 위해 중간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어머니 성격, 아동기질, 가족요인의 각 하위요인들과 취업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성격간의 상관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경증적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가 정적상관을, 그 외 변인과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경증적 성향이 낮고, 친화성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은 성향이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활동수준과는 정적상관을, 융통성・쾌활성・규칙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활동수준이 낮을수록 융통성이 높을수록, 쾌활성이 높을수록, 규칙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만족도, 가족지지와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이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

Table 3.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Analytical Variables

Variables	General stress	Parenting burden	Guilt	Total
Agreeableness	-.346**	-.223**	-.237**	-.304**
Conscientiousness	-.297**	-.194**	-.199**	-.260**
Extraversion	-.244**	-.239**	-.204**	-.260**
Neuroticism	.473**	.424**	.364**	.478**
Openness	-.110	-.102	-.091	-.115
Activity	.247**	.264**	.223**	.278**
Approach	-.148*	-.059	-.043	-.096
Adaptability	-.278**	-.202**	-.233**	-.266**
Mood	-.414**	-.197**	-.287**	-.335**
Regularity	-.178**	-.054	-.132*	-.133*
Persistence	-.022	-.160**	-.031	-.086
Marital Satisfaction	-.347**	-.268**	-.272**	-.334**
Family support	-.154**	-.267**	-.152**	-.220**

*p < .05, **p < .01, ***p < .001

증을 한 결과 계수가 1.784~1.988점으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이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Ⅰ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에 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였고, Ⅱ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 전체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각 영역의 예측변인을 투입한 모델 I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가족 월수입(β=-.31, p<.01), 연령(β=-.22, p<.05), 교육수준(β=.19, p<.05),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β=.18, p<.05)이 유의미하였고 교육수준,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는 정적 영향을, 가족 월수입,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월수입이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는 경우의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인들 중 어머니 성격을 회귀분석에 추가하여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변인은 신경증적 성격(β=.37, p<.001), 외향성(β=-18, p<.05)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이 신경증적이고, 외향성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기질 중 활동수준(β=.30, p<.001), 쾌활성(β=-.27, p<.01), 융통성(β=-.19, p<.05)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기질이 활동수준이 높고, 쾌활성과 융통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취업모들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변인들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β=-.18, p<.05), 배우자나 친지 등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β=-.33, p<.001).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성격, 기질, 가족변인별로 투입하였던 모델 I 에서 각각의 변인별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18.8%이었으며, 이 변인들에 어머니의 성격 변인이 추가된 경우 38.9%, 아동기질변인이 추가된 모델은 38.2%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지가 포함된 경우 26.7%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변인이 추가된 모델에서 설명력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모델Ⅱ와 같았다. 모델 Ⅱ 전체 설명력은 56.5%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β=.30, p<.001), 아동기질 중 쾌활성(β=-.24, p<.05), 가족지지 (β=-.237, p<.01), 융통성(β=-.233, p<.01), 어머니 성격 중 성실성(β=.227, p<.01), 아동기질 중 접근성(β=.219, p<.01), 어머니 성격 중 외향성(β=-.181, p<.05), 직업(β=.149, p<.05), 아동기질 중 주의지속성(β=-.039, p<.01)의 순의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격이 신경증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반면 성실성이 높으며 외향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접근성이 높지 않고, 주변 환경에 대한

Table 4. Regression Models Predicting 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변인	Model Ⅰ				Model Ⅱ
	β	β	β	β	β
Mother age	-.219*	-.197*	-.211*	-.197*	-.232**
Education	.194*	.187*	.186*	.221*	.189*
Occupation	.152	.115	.195*	.155	.149*
Monthly income	-.305**	-.227*	-.186*	-.254**	-.132
No. of children	.006	.137	-.011	.002	.090
Age of first child	-.087	-.066	-.036	-.058	-.057
Afterschool childcare	.184*	.117	.103	.164	.051
Childcare provider	.080	.095	.080	.092	.087
Agreeableness		-.157			-.121
Conscientiousness		.138			.227**
Extraversion		-.183*			-.181*
Neuroticism		.372***			296***
Openness		-.097			-.038
Activity			.302***		.151
Approach			.109		.219**
Adaptability			-.191*		-.233**
Mood			-.270**		-.243*
Regularity			.035		-.007
Persistence			-.022		-.039**
Marital Satisfaction				-.01	.071
Family support				-.30***	-.237**
Constant(상수)	3.644	3.633	3.613	4.089	4.096
R^2	.188	.389	.382	.267	.565
F	3.567**	5.785***	5.166***	4.404***	6.807***
Durbin-Watson	1.784	1.859	1.921	1.753	

*p < .05, **p < .01, ***p < .001
1) Education: 0=high school or lower, 1=College
2) Occupation: 1=Professional
3) Monthy income: 1=₩3,810,000 or more
4) Number of children: 1=2 or more
5) Child care provider afterschool: 1=yes
6) Child care provider: 1=non-relative

적응력이 높으며, 전반적인 성격 특성이 쾌활하고,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주의집중 및 지속성이 있는 기질의 자녀를 양육할 때,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최근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나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력만을 고찰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양육부담보다는 양육자 자신의 개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성격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알아봄으로서 기혼취업여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관련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중간점수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자녀학업과 학교

생활 적응에의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부담감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았는데, 산업화로 인하여 현대적 성역할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대상인 취업모들은 여전히 전통적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서 대리양육자 특히,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갈 때 불안감과 죄책감이 가중 될 것이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양육효과에 대한 정보부족과 특정상황의 불참여로 인한 어머니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죄책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자녀양육에 대해 부부공동역할의 부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취업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여전히 가부정적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부담감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기혼취업여성의 가치나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변인, 개인변인, 자녀변인, 가족변인 모두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인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머니 성격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의 기질과 결혼만족도, 가족지지가 모두 포함된 모델에서도 어머니의 신경증, 외향적, 성실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어머니가 신경증적이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외향적인 성격은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이는 이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Belsky & Barends, 2002; Kochanska, Clark & Goldman, 1997)를 일부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신경증 성향은 자녀의 행동을 왜곡해서 판단하거나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머니 스스로가 불안과 긴장감이 높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낮아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낄 수 있다. 외향성을 사교적이고,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주변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알리고, 문제해결을 하고자하는 성향이라고 볼 때, 이런 성격은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경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성실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며 평소생활이 규칙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는 양육행동에 있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모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기혼취업여성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육자 성격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한국적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개인요인 외에도 자녀요인으로서 아동기질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접근성, 융통성, 그리고 쾌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크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기질이 적극적이고, 적응력이 빠르며, 전반적인 정서 상태가 밝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체감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편안한 기질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Nam(2003)과 Gelfand 등(1992)이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자녀양육에서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의 행동 및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방향적 모델(bidirectional model)을 제시한 Ambert (199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변인 중 가족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의미있는 변인임을 밝힌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e.g. Belsky & Kelly, 1994; Heo, 2006)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양육자 개인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가족 전체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머니를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관계 및 가족체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취업모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아동의 기질변인, 그리고 가족생활 관계변인과 동시에 살펴본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변인 중 성격만을 포함하였으나 어머니의 다른 변인(e.g. 우울성향, 자녀양육가치관)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Abidin, R. R.(1983).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hn, J. Y.(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Ahn, Y. H., Kim, Y. H., Han, S. Y.(2008).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ouple's child-rearing agre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Human Ecology, 12(2),* 1-14.

Amber, A. M.(1992). *The effect of children on parents.* New York: Haworth Press.

Bae, K. Y.(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ly stress of infant raising stress of both job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Bek, Y. S.(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Belsky, J. & Barends, N.(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Mahwah, NJ: Lawrence Erlbaum.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uss, A. H., & Plomin, R.(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Chang, J. Y.(2003). Hidden Choice : Paid work and child care for married female workers. *The Women's Studies, 65(2),* 149-179.

Cho, K. W.(2004). The effects of employed mothers' working conditions, their husbands' support, and child care service on parenting role strai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9(2),* 161-178.

Chyung, Y. J.(2008).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3), 73-85.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rnic, K, A, & Booth, C.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Crnic, K. A. & Greenberg, M. T., Ro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ime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Feldman, R., Eidelman, A.I., & Rotenberg, N.(2004). Parenting stress, infant emotion regulation,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riplets: A model for parent and child influences in a unique ecology. *Child Development, 75(6),* 1774-1791.

Gelfand, D. M., Teti, D. M. & Fox, C. E.(1992). Sources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3),* 262-272.

Heo, S. K.(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Jeon, S. M.(2007).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childcare support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Jeong, Y. K.(2005). A study on work-family conflict and spillover of married working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113-122.

Jin, S. O. & Kim, Y. H.(2003).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discipline style. *Journal of Human Ecology, 7(2),* 137-156.

Jin, Y. B.(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Level of Parental satisfaction in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Kim, H. J.(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im, H. M. & Doh, H. S.(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Kim, H. S., Kim, K. S.(2003). Parental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4),* 117-131.

Kim, J.(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im, J. & Lee, J. 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45-261.

Kim, K. H. & Kang, H. K.(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9),* 141-150.

Kim, K. H.(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im, K. W., Doh, H. S., Kim, S. W. & Rhee, S. H.(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m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Kim, L. J., Yoon, C. H.(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Kim, M. S. & Moon, H. J.(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3),* 235-258.

Kochanska, G., Clark, L. & Goldman, M.(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parenting and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9-420.

Koh, S. H.(1994). A study on mother perceived parenting stress. *Korean Adolescence Studies, 18,* 21-31.

Lee, J. O.(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ith infants and those with kindergarten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41-61.

Lee, J. W.(2003). The childcaring stress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2),* 207-216.

Lee, S. E.(2010).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and parent-caregiver partnership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Min, B. M., Lee, K., & Jung, J. C.(1997).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S).* PSI Consulting: Seoul.

Moon, H. J.(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15-129.

Nam, H. S.(2003). *A difference of parenting stress dependent o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heir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Park, B. J.(2006). *A study on the nurs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Park, S. S.(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Park, Y. M.(2002).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oach, A. J., Frazier, S. R. &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3),* 537-546.

Seo, J. S.(2004). *The research on the working mother'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Focused o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Statistics Korea.(2009). *Hindering factors of employment of married women.* Daejoen: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2011). *Women's live by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Tupes, E. C. & Christal, R. C.(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Technical Report. Lac-

kland Air Force Base, TX: U.S. Airforce.

Vondra, J., Sysko, H., & Belsky, J.(2005). Developmental origin of parenting: Personality. In T. Luster & Ok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35-72, NJ: LEA.

Webster-Stratton, C.(1990). Long-term follow-up of families with young conduct problem children: From preschool to grade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44-149.

Weinraub, M. & Wolf, B. 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5),* 1297-1311.

Whipple, E. 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

Windle, M.(1992).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Simultaneous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dolescent gender groups. *Psychological Assessment, 4(2),* 228-234.

Yang, S. K.(2010).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 with toddlers: Focus o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ttitude for occupation, and pre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67-76.

□ 접 수 일 : 2013년 06월 17일
□ 심 사 일 : 2013년 08월 06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30일